

# ‘문화는 경쟁 아닌 공존’...지역 화가 5인의 삶을 기록하다



‘문화는 경쟁 아닌 공존이다’  
말은 쉽지만 문화 현장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모든 것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문화 또한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문화는 붕괴 직전”이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릴 만큼 문화적 토대가 허약하고 침체돼 있다.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지역 작가들의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공공자산화를 도모하고 있는 지역 문화재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은 지역 화가 5인의 삶과 예술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명 ‘호남예술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 설립 20주년과 맞물려 기념 예산을 의미 있게 사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노경수 이사장은 “문화는 경쟁에서 타자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지향점이 있지 않다”며 “함께 서로를 살리는 선택을 통해 가치가 구현된다. 재단을 기념하는 것보다 예술가들의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화가 5인은 류현자, 박성휘, 이두환, 임수영, 정정임 등 모두 5명이다. 작가 선정은 재단이 매년 5·18 광장에서 여는 인문예술테크놀로지 축제 가운데, 드로잉 로컬(100인의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에 참여했던 작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다.

재단 김윤아 상임이사는 “화가들이 벽을 허물고 시민은 응답하고 재단은 그들의 기록을 남겨 선순환 구조로 지역문화예술의 상생을 도모했다”며 “이는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막연히 말하는 게 아니라 작은 선택을 통해 실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영상은 화가 5인의 작품 세계 외에도 사유와 삶의 결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 아카이브가 시민들과 지역 미술이 깊이있게 만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가들의 광주에 대한 단상, 작품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광주가 자신에게 발하는 의미 등은 대

## 20주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호남예술인 아카이브’ 영상 기록 재단 20주년 기념행사보다 류현자 등 지역 작가 5명 조명 재단 공식 SNS서 영상 시청

동소이었다.

이두환 작가는 “광주는 저한테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준 도시라고 할까? 그래서 이 느낌은 제가 어디 가서 활동을 하든 계속 갖고 갈 것 같다”며 “저한테는 광주가 그런 의미이다”라고 말했다.

박성휘 작가는 “저는 광주를 되게 사랑한다”며 “색채나 생명력 있는 작품을 해나가려는 태도에서 그런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임수영 작가는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 문화예술인은 많다고 본다. 평소 선후배의 그림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자신의 또 다른 창작의 모티브나 주제로 작용한다. “제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광주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동력’들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말하기 직전의 떨림 같은 것들, 그 조용함이 오히려 ‘광주적’이라고 생각해요. 침묵이나 공백, 어떤 지워진 흔적 같은 것들이 제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정정임 작가)

한국화를 전공한 류현자는 작업의 핵심 주제가 어머니이다. 그는 어머니를 표현하는 소재로 버선을 선택해 ‘사모곡 시리즈’를 하고 있다. 그는 “광주에서 작업하는 것이 너무 좋다”며 “40년이 되어가는 화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것과 결부된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지역 문화의 뿌리인 예술가들을 조명할 영상 기록물은 지역 문화 교육 자료, 아카이브 자산으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영상은 9일 첫 공개를 기점으로 재단 유튜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해 볼 수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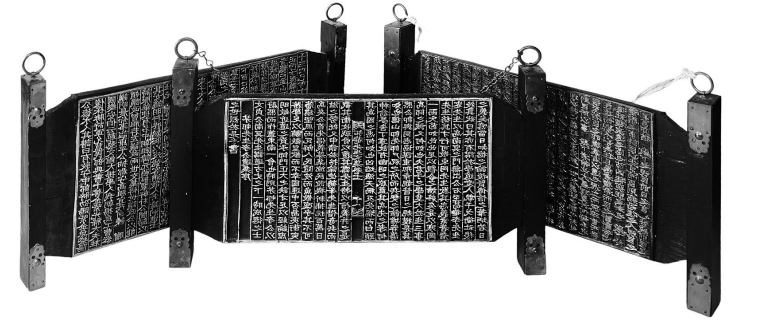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지역 화가 5인의 삶과 예술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호남예술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 타국 떠돌던 항일 의병장 문집 고국 품으로

송시열·채제공 문집 3점...유산청, 1970년대 반출된 책판 기증받아

조선 후기 유학자와 항일 의병장의 문집 책판이 미국으로 건너간 지 50여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다.

국가유산청과 국의소재 문화유산재단은 미국 워싱턴DC 소재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서 ‘척암선생문집’·‘송자대전’·‘변암집’ 책판 3점을 기증받았다고 9일 밝혔다.



기증받은 ‘송자대전’, ‘척암선생문집’, ‘변암집’ 책판. (국가유산청 제공)

책판은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나무판에 글씨를 뒤집어 새긴 나무 판이다.

조선시대에는 주요 유학자의 문집이나 저작물을 제작할 때 책판을 썼는데 현재 718종 6만4226장이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책판은 1970년대 초 한국에서 근무했던 미국인이 일종의 ‘기념품’으로 구입해 미국으로 가져가 보관한 유물이다.

1917년에 판각(板刻)나뭇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한 ‘척암선생문집’ 책판은 척암 김도하(1825~1912) 선생의 문집을 찍은 책판이다.

이번 책판은 1970년대 초 미국 연방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 한국지부에서 일했던 앨런 고든(1933~2011) 씨가 한국의 골동품상으로부터 사들인 뒤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고든 씨가 사망한 뒤에는 부인이 보관하다 지난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기증 의사를 밝혔고, 협의를 거쳐 재단 미국사무소로 넘어오게 됐다.

‘송자대전’ 책판은 조선 후기 유학자 우암 송시열(1607~1689)의 문집과 연보 등을 모아 만든 것으로, 1926년 판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집은 1787년 처음 간행됐으나 1907년 일본군에 의해 책판 전체가 소실됐다. 이후 1926년 후손들과 유림이 책판을 다시 새겨 복각했다고 전한다.

복각한 책판 1만1023점은 현재 대전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조선 영조(재위 1724~1776)와 정조(재위 1776~1800) 시기 국정을 아꼈던 핵심 인물인 변암 채제공(1720~1799)의 문집 ‘변암집’ 책판도 돌아오게 됐다.

‘변암집’ 책판 역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유산이다. 전체 1159점 가운데 358점만 남아 있으며 ‘척암선생문집’ 책판과 함께 세계기록유산에 일괄 등재됐다.

/연합뉴스

## 화순 문화유산 해설사 도전하세요

운주사문화관 도슨트 클래스 운영...13일까지 수강생 모집

지역의 문화유산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이는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화순 운주사 출토 유물의 가치를 지역의 시선으로 풀어낼 도슨트 양성 과정이 마련됐다.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은 전시 해설 활동에 참여할 지역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6 도슨트 클래스’를 운영하고, 오는 1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전시 해설 활동에 관심 있는 성인과 청소년으로 선발 인원은 10명 내외다. 이번 과정은 운주사 출토 유물 전시와 연계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해설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 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론 수업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운주사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진행

된다. 운주사에서 발굴된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의 맥락을 읽는 방법과 해설 구성, 관람객과의 소통 방식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론 과정을 마친 참여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하반기 전시 기간 동안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 전시장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는 방식이며, 활동 시간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립운주사문화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운주사문화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전시 해설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강료 1만 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